

#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홍지아\*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방송된 TV드라마 27편, 152명 여성등장인물의 연령대, 외형적 특징, 그리고 이들이 극의 주요갈등구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외형적 이미지와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과 외형적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2000년대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의 45%가 20대 여성이며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편 가운데 3,4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배우자의 외도를 소재로 삼은 4편에 불과하며 그 외는 예외없이 20대 남녀의 사랑과 결혼, 도전과 좌절을 드라마의 갈등구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4,50대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 그 이상의 여성은 주인공의 할머니라는 제한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삶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어른의 모습보다는 자녀의 연애사에 개입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처신으로 자녀세대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혹은 가족이기주의에 젖어 일상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드라마의 주요갈등구도에서 소외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할머니 또래 여성들의 재현에 두드러져 60대 여성노인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주책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중성적 모습으로 재현된다. 또한 주인공 여성들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실히 재현하며 특히 꾸밈이 없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주인공 여성의 외형적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인공 여성을 괴롭히는 주인공의 연적이나 악역 캐릭터는 치장된 아름다움으로 외형적 대비를 이루고 있어 사회적 성공을 위한 육체자본으로서 젊은 여성의 몸을 재현하되 꾸민 아름다움보다는 타고난 아름다움이 우위의 가치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권력획득을 위한 육체자본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그러한 여성의 몸을 위태롭고 강박적인 모습으로 묘사함으로 몸의 권력화를 경계한다.

주제어: 몸, 늙음, 육체자본, TV드라마

## 1. 들어가며

성별(sexual distinction)은 개인이 서로를 평가할 때 전제가 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성은 계급, 직업, 연령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에 따른 역할구분이 뚜렷한 사회일수록 성별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한설아, 1999).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성정체성에 대한 보브와르(Beauvoir, 1949/1996)의 통찰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과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 부여된 젠더적 여성성과 남성성, 다시 말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모두를 포괄한다.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성(sex)과 문화적이고 심리적 개념으로서 젠더(gender)의 구별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학자들은 신체의 차이로 인한 자연적인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구분하는 성(sex)과 달리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의미하는 젠더를 매우 자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한 개인을 구성하는 성적 정체성은 해부학이나 생리학적인 성기의 특징에 더해 출생 후 부여되는 문화적 구분인 젠더의 영역을 더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 정체성은 성차에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부교수(hja2081@khu.ac.kr)

따라 적절한 행위와 몸짓, 태도를 구별하는 정교한 코드를 할당하며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차이, 나아가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질 성역할의 차이를 재생산한다(Millett, 1970). 꽃무늬가 수놓아진 분홍색 여자아이용 침구, 자동차가 그려진 파란색 남자아이용 침구, 여자아이에게 선물하는 인형과 남자아이에게 선물하는 장난감 총,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상담원 등 이른바 정서적 돌보기 성향이 강한 직업을 여성적 직업으로 분류하는 관행 등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구별을 재생산하는 문화적 실천의 예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몸은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물리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성별, 나아가 성역할의 구별을 위한 갖가지 문화적 장치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장필화, 1992).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가시적인 매개체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Giddens, 1992/1995).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속한 계급이 요구하는 말씨, 태도, 차림새 등을 몸에 익히고 사회적 실체로 전환된 몸은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육체자본으로서 구별짓기의 도구로 사용된다(Shilling, 1993/1999). 문화적 실천의 대상으로서 몸에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은 출생으로 구별되는 생물학적 몸에 더해 인간의 몸을 완성하는 사회학적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 자연과 문화, 공동의 산물로서 개인의 생애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적 실체로 몸을 바라보고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Shilling, 1993/1999).

보브와르의 표현을 빌자면 여성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며 동시에 여성의 몸으로 키워진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는 남자 아이처럼 거칠게 뛰어놀기보다 얌전히 앉았하기를 권유받으며 외모에 남자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의 몸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유기체가기보다는 적절한 크기의 가슴, 희고 깨끗한 피부, 청초한 긴 생머리 등 사회가 원하는 분절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된다. 청순한 외모의 미혼여성을 등장시킨 생리대 광고는 여성의 몸을 ‘미술’로 신비화하거나 ‘그날’을 위해 특별한 깨끗함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여성의 생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런가하면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여성의 몸은 정복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몸을 정복의 대상으로 물신화하는 문화는 미개척 분야를 남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육체를 빔대 ‘처녀지’로 부르는 관행이나 여성과의 성관계를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속어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영(Young, 1998)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와 의도를 표현하는 남성의 몸과 달리 여성의 육체는 다른 주체, 즉 남성의 의도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일례로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질 공간을 스스로 축소하며 제한하는데 이는 여성의 발언권과 지위가 남성보다 열등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강간이나 성희롱 등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일수록 여성의 육체는 취약하게 여겨지며 상주하는 성폭력의 위협에 경계하고 주저하는 소극성이 여성의 몸에 내재된다.

이 연구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그리고 젠더적 여성다움을 실천하는 최소이자 필수단위인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몸을 구성하는 사회적 담론에 주목한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와 특징이 재현된 몸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정체체성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정체체성에 기인한 사회적 성역할과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여성주의 진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듯이 여성의 몸은 여성에게 주어질 제한된 성역할과 성차별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러한 가치가 실천되며 재생산되는 현장 그 자체이다(Bordo, 1993/2003). 몸을 통해 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행동과 태도, 옷차림 등은 어느 정도는 생물학적 자연스러움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다움과 여성에게 주어질 성역할을 반영한 문화

적 실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성별화된 여성의 몸(gendered body)을 살펴봄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 재현되는 여성다움의 사회적 기준과 담론, 나아가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역할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담론에 길들여진 여성의 유순한 몸

한국사회에서 몸,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은 90년대 탈근대의 바람과 맞물려 있다. 논리와 이론, 이성과 정신 중심주의가 해체되면서 감성과 육체, 무의식과 자연의 가치가 재평가 되었고 이러한 와중에 기존의 언어와 글쓰기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 겪는 생물학적, 문화적 체험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이재복, 2004). ‘여성’이라는 기호에 담긴 사회적 담론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기호 내의 변별작용(이를테면 ‘남성’이라는 기호와의 차이)에 의한 상대적 가치라는 자각은 하나의 기호로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문화적 해석으로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잡지 이프의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 영 페미니스트 문화기획 불턱의 ‘월경 페스티벌’은 여성의 몸에 대한 대안적, 혹은 새로운 해석이 구체적인 문화 퍼포먼스로 형상화된 예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의도는 여성의 몸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거부하는 한편 여성의 몸을 비밀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감출거리에서 대중적인 논의거리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박선영, 2004). 이러한 시도는 가부장 문화에 의해 여성의 몸에 부여된 한계와 평가절하를 부정하고 여성의 몸에 내재된 다양한 아름다움과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의미를 갖는다.

담론을 내재화하고 실천하며, 담론의 재생산 통로가 되는 몸에 대한 논의에 유용한 이론적 토대<sup>1)</sup>를 제공하는 푸코(Foucault, 1975/2003)는 서구의 근대적 주체형성에 있어 생체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체권력은 개별신체에 대한 신체들의 몸짓, 능력, 행동에 대한 지식과 권력을 뜻하는 기율권력과 인간의 재생산 과정과 신체를 지휘하는 정책에 각인된 규제권력을 포함한다. 가부장 문화권에서 여성의 신체는 가부장의 자손생산을 담당하는 도구로 필연적으로 생체권력의 대상이 된다(Sawicki, 1988). 또한 사회적 지위, 권력, 자본 등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여성은 남성의 애인과 아내의 자격으로 남성의 자본을 공유하는 체제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육체자본으로 활용된다. 외모가 뛰어난 여성이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며 취업시장에서도 유리한 현실은 여성 스스로 외모가꾸기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이끌며(임인숙, 2007) 자본으로서 여성의 몸은

1) 푸코는 그의 저서 <성의 역사> 1권에서 섹스가 말해지고 안해지고, 혹은 섹스에 대해 말하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되는 것과 이야기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구분,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말하며 어떤 식의 조심성이 요구되는가의 문제가 관건이며 누가 이러한 기준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육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데 흑인의 성애에 대한 과장된 편견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의 정서적 능력, 히스테리, 두뇌의 크기, 지적능력 등에 대한 잘못된 의학상식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의 권력집 단들은 인종, 성, 연령의 육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적 소수자들을 ‘퇴화’의 범주로 유형화한다. 이러한 사회지배집단의 전략이 성을 정치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언제나 더 나아져야 하는 개선과 관리의 대상으로 사회가 규정한 특정한 행동양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한 한계를 지닌다(Shilling, 1993/1999).

권력은 폭력이 아닌 문화적 규칙, 연습, 훈련, 평가, 감시등을 통해 인간의 육체를 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길들여 유순한 몸으로 만든다. 벤담(Bentham)의 판옵티콘(Panopticon)에서 보여지듯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감시자의 시선에 노출된 죄수는 간수에 의해 늘 감시당한다고 느끼며 감시체제에 순응함으로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상황에 놓인다(Foucault, 1975/2003). 바트키(Bartky, 1988/ 2001)는 가부장 문화에서 성장해 유순한 몸을 가지게 된 여성들의 의식 속에는 판옵티콘의 감시관 같은 남성감각가가 상주하며 여성들은 그의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감시하며 훈육한다고 주장한다. 간수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 권력자의 존재를 내면화해 자발적 검열을 실시하는 죄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권력자인 남성의 시선을 내재하며 자신의 몸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생체권력이 여성의 몸에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가부장 문화가 여성에게 원하는 성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부장 문화는 여성에게 남성이 원하는 정서적 위로와 사랑을 제공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정서적 돌보미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임금노동자로 가정을 부양하는 남성과 가정에 머물며 무보수 가사노동과 가족을 돌보는 정서노동자로서 여성의 성역할이 구분되는 현상은 근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의 결과이다(Giddens, 1996).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제공자로서 어머니, 즉 여성의 공간은 가정으로 제한되며 일을 할 경우에도 가족의 중요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적 특성이 강조된 교사, 간호사, 상담가 등의 직업이나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직이 이른바 여성적인 직업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직업의 구별은 체력의 차이 등 신체적 특성과는 상관없으며 남성적인 일로 여겨지는 직업일수록 성적인 농담이나 거친 행동 등이 직업의 문화적 특성으로 여겨지며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Epstein, 1992).

여성의 제한된 성역할은 여성의 몸이 남성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일정한 유형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것과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열등한 육체로서 한계를 유지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우선 일정한 유형의 아름다움은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전형적인 외모와 날씬한 몸매로 대표된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 노력인 다이어트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려는 시도를 넘어 성별차이가 뚜렷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시하는 여성은 사회가 원하는 몸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외형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위해 나뭇의 자기검열을 수행하는 것이다(한설아, 1999). 성공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외모와 옷차림은 여전히 중요한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일은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남성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양정혜, 2002; Posch, 1999/2001). 남성과 달리 여성은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도 여성으로서 일정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회적 성공이 위협받거나 평가절하 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다.<sup>2)</sup>

2) 여성의 외모를 여성의 능력이나 나아가 여성의 성품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은 여성의 날씬하고 육감적인 몸매를 ‘아름다운 몸매’가 아닌 ‘착한 몸매’로 부르는 신조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20대 학생들에게 ‘착한 몸매’와 ‘아름다운 몸매’의 차이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자 한 학생이 광고의 예를 들어 ‘아름다운 몸매’는 ‘와우(wow)’, ‘착한 몸매’는 ‘올레(olleh)’라고 답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폭소와 박수로 이에 공감한 에피소

한편 여성의 몸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고 무력한 육체로 사회화된다. 생체권력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진 남성과 여성의 몸을 개인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규제에 의해 다르게 훈련함으로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전환한다(Bordo, 1988/2001). 여자아이들은 몸의 크기에 상관없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존재’로 규정되며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축구 등 격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동안 여자아이들은 몸을 장식할 것을 격려받는다. 성별에 따른 활동의 기회차이가 결과적으로 몸의 발달과 변형에 영향을 미치고 성별화된 몸을 재생산하는 것이다(Shilling, 1993/1999). 이렇듯 문화적 생활규범에 의해 규제된 유순한 몸은 순종성이 확보되고 주체성이 구성되는 지배의 거점으로 전환한다(황정미, 1995).

문제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스템이다(Posch, 1999/2001). 여성으로 하여금 다른 사회적 성취에 앞서 강박적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에 몰두하게 만드는 시스템, 몸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여성의 능력보다 외모를 중시해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시스템에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 2) 여성의 나이 들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정체성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여성의 늙음은 단순한 나이 먹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성의 외형적 늙음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음과 동시에 가부장 문화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육체자본을 상실함으로 그만큼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움은 개인의 개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이 가능한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젊음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선주 & 정진경, 1992).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사회적 성취에 앞서 여성을 평가하는 주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일수록 여성의 아름다움과 연령은 여성의 위계질서를 결정하는 대표적 변수로 작용한다(Millet, 1970/2007). 젊고 아름다운 몸을 향한 사회적 호의가 그렇지 못한 여성, 예를 들어 늙은 여성이나 아름답지 못한 여성, 혹은 장애여성에 대한 타자화로 이어지며 여성들 사이에 하위지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이다(조옥라, 2001; Brownmiller, 1984; 최현진, 2004).

늙음에 대한 공포는 기실 여성들만의 몫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대인의 불안감은 최소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위로받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젊음의 유지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Posch, 1999/2001). 몸의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죽음을 연상케 하는 늙음의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공포가 심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늙음에 대한 일반적 거부감에 더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젊은 여성의 나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어린 까닭에 늙음의 공포에 그만큼 더 오래 노출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육체적 매력과 어머니 역할, 다시 말해 출산과 육아의 능력을 우선적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관습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성의 나이 들이 사회적 성취와 그에 걸맞은 권위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의 절정기는 20대의 젊은 시기로 한정되며 이 시기를 지난 여성은 여성적 매력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력을 상실한 결핍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오자영, 2007).

주변화된 집단을 단 하나의 속성으로만 환원시켜 다양한 성격과 잠재력을 무시하는 지배전략의 속성에 따라(한설아, 1999) 늙은 여성은 여성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늙음의 다양한 모습과 성취, 고민에 대한 관심보다는 늙은 외모가 강조된 사회적 타자로 획일화된다. 이는 일정한 연령대 이상의 여성이 ‘이중마’로 집단화되어 사회적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현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늙은 여성은 외형적 늙음으로 인해 젊은 여성이나 또래의 남성보다 무력하고 열등한 존재로 위치지어지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젊음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지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기준 외에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나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Steinem, 1995/2000). 교육의 제도권 안에 머물고 있는 젊은 여성은 교육과 학위에 대한 믿음, 즉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학위를 성취하면 남성과 같은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기존의 사회체제에 순응적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아가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나이를 먹으며 결혼의 불평등함, 육아의 부담, 임금과 승진의 차별 등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넘지 못하는 성차별의 제도적 벽에 부딪힌다. 또한 젊음과 아름다움이라는 방패막을 상실한 여성은 더 이상 여성답지 못한 여성으로 집단적 평가절하와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이 든 남성과 달리 나이 든 여성은 사회의 비주류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러한 여성의 진보성은 주류인 남성과 남성의 지배체제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결국 나이 든 여성의 진보성을 견제하는 가부장 문화의 대응방식이 나이 든 여성의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사회적 소수자의 그것으로 은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Steinem, 1995/2000).

나이 든 여성의 가치가 원래부터 평가절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신화를 통한 여성성의 재발견을 연구한 고혜경(2006)은 많은 고대신화와 이야기에서 나이 든 여성은 여신과 같은 마술적 존재로 직관과 예지력으로 악을 물리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근대이후 가부장문화의 지배가치로 자리잡은 이항대립적인 성역할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며 삶과 죽음, 규칙과 파격,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며 생명을 구하고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관건은 여성이 수행하는 성역할을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남성을 위한 성적대상과 정서적 돌보미로서 여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나 리더십, 늙음에 따른 성숙함에 앞서 남성의 기준에 맞는 외모와 생식력과 연결된 젊은 나이를 우선적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나이 든 여성의 주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 3)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이미지의 재현

현대사회의 대표적 현실재현과 가치 재생산 도구인 TV는 사회의 주류담론과 그를 둘러싼 방대하고 복잡한 의미생산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적 텍스트이다(Walters, 1995/1999). 가부장 문화의 성역할 가치를 정당화하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대중매체, 그 가운데서도 전달력 높은 영상과 설득력과 재미를 겸비한 서사로 폭넓은 시청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 TV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풀어쓰자면 여성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 가운데 가부장 시각의 담론, 즉 여성에게 주어진 제한된 성역할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문화적 실천에 길들여진 유순한 여성의 몸을 우선의 가치로 제시하기 위해 TV가 벌이는 의미구성의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문화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현상학과 인류학,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사회구성이론의 영향을 받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연구 진영에서는 TV를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사회의 공동된 믿음을 재현하는 동시에 사회가 지지하는 진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때로는 협상되는 문화적 토론의 장으로 규정한다(Newcomb&Hirsch, 1983).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매체에서 생산되는 개별의, 혹은 연속된 프로그램은 사회적 신화를 재생산하는 통로로서 현실을 정의하는 문화적 합의의 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이다(Fiske&Hartley, 1978/1994). 이들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주장, 입장에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며 현실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지배적이고 선호되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생산한다(White,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의 현실 재현에 대한 논의는 매체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영이론을 넘어 현실의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한다.

젠더의 영역에서도 매체는 기존의 성적차이를 반영하는 것에 더해 특정한 방식으로 성적차이를 구성한다. 즉 매체에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표면적 특징을 강조하는 여성의 이미지라는 개념 대신 기호로서의 여성이라는 보다 두꺼운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Walters, 1995/1999). 성차를 드러내고 차별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는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 된다(Walters, 1995/1999). 남성이 주체로 자리잡은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동차나 맥주처럼 값을 매길 수 있는 볼거리가 되며 여성의 사랑은 일일 드라마의 환상으로, 여성의 공포와 나약함은 초대형 액션영화를 빛나게 하는 상업적 볼거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스펙터클화하는 매체의 접근은 과거에는 일반 여성과 분리되어 ‘어머니다움’이 강조되었던 어머니의 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대의 피임기술, 과학적 운동기술과 지식의 발달은 어머니의 몸에도 여성으로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Giddens, 1995). 출산 후 빠른 시간 안에 임신 전의 체형을 회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 관리로 여겨지며 아이를 낳고도 변함없이 성적 매력이 넘치는 어머니의 몸은 현대의 매체가 열광하는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어<sup>3)</sup> 외적인 아름다움 유지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가 여성을 재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내면적 가치보다 외모와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로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가장 대중적 장르인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는데 고른 연령대를 보이는 남성과 달리 TV드라마 속의 여성들은 육체적 아름다움과 성적매력이 강조되는 특정한 연령대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Signorielli&Bacue, 1999).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커플은 여성의 나이가 남성보다 어리며 여성이 나이가 많은 커플의 경우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로 강조되거나 회화화된다. 또한 남성은 나이를 먹어서도 인생을 즐기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비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무능력하고 추한 존재로 그려져 육체적 늙음이 여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정된다(Gerbner,Gross, Signorielli&Morgan, 1990).

3) 동아TV에서 방송되는 ‘스타홀릭 헬리웃 스키니 맘’은 출산 후에도 엄격한 훈련과 다이어트로 임신 전의 몸매를 회복하는 유명 여자연예인들의 몸을 볼거리로 제시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출산 후 3주만에 란제리 모델로 복귀한 하이드 클롬, 빅토리아 베컴, 마돈나 등을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스타홀릭 헬리웃 스키니 맘’은 이들이 출산과 상관없이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다루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인터뷰를 곁들인다.

유사한 예는 한국의 TV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루어진 선행연구(김명혜&김훈순, 1996; 한동신, 1984)들을 살펴보면 한국 TV드라마의 주요 여성캐릭터의 절반 정도가 20대이며 극중 절대 다수의 여성주인공이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고 늙거나 아름답지 못한 여성은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또한 드라마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배우의 나이가 젊으면 주인공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인공의 어머니나 그 외 가족 등 주변적 역할을 담당한다(홍지아, 2009).

### 3.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연구자는 사회가 규정하는 차별적 성역할이 구현되는 일상의 장으로서 여성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외형적 이미지와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과 외형적 이미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이미지의 재현에 있어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친 선행연구와 이번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여성이미지의 재현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여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가진다.

연구대상의 선정을 위해 2000년부터 2007년 8년 동안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가운데 시청률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드라마<sup>4)</sup>를 파악했다. 시청률을 표집의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대중매체로서 TV드라마를 통한 여성 이미지의 전반적인 재현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대중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사극이나 민속절기별 특집극, 대본이나 동영상의 자료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드라마를 제외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7편의 드라마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방송사가 제시하는 일일드라마, 주간드라마(월화, 수목드라마),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기타(특별기획, 드라마스페셜)의 형식에 따라 드라마를 구분하였다. 각 형식별로 선정된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표 1-1> 일일 드라마

	방송사	방영일자	극본	연출
인어아가씨	MBC	2002.6.24~2003.6.27	임성한	이주환
미우나고우나	KBS1	2007.9.3~2008.5.2	김사경, 최형자	이덕건
하늘만큼땅만큼	KBS1	2007.1.15~2007.8.31	최현경	문보현
열아홉순정	KBS1	2006.5.22~2007.1.12	구현숙	정성효, 황인혁
굳세어라 금순아	MBC	2005.2.14~2005.9.30	이정선	이대영
별난여자별난남자	KBS1	2005.9.23~2006.5.19	이덕재	이덕건, 박기호
백만송이 장미	KBS1	2003.1.6~2004.6.4	최현경	문보현, 박만영

4) 자료제공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분석기간 2000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분석채널: KBS1, KBS2, MBC, SBS. 분석지역:수도권. 분석대상: 가구.



<표 1-2> 미니시리즈

	방송사	방영일자	극본	연출
가을동화	KBS2	2009.9.18~2000.11.7	오수연	윤석호
이브의 모든 것	MBC	2000.4.26~2000.7.6	오수연, 박지현	이진석, 한철수
맛있는 청혼	MBC	2001.2.7~2001.3.29	김인영	박성수
내 이름은 김삼순	MBC	2006.6.1~2005.7.21	김도우	김윤철

<표 1-3> 주간드라마

	방송사	방영일자	극본	연출
장밋빛 인생	KBS1	2005.8.24~2005.11.10	문영남	김종찬
풀하우스	KBS2	2004.7.14~2004.9.2	민효정	표민수
내 남자의 여자	SBS	2007.4.2~2007.6.19	김수현	정을영

<표 1-4> 주말 드라마

	방송사	방영일자	극본	연출
여우와 솜사탕	MBC	2001.10.27~2002.4.27	김보영	정인
소문난 칠공주	KBS2	2006.4.1~2006.12.31	문영남	배경수
보디가드	KBS2	2003.7.5~2004.9.14	이한, 엄효호, 권민수	전기상
애정의 조건	KBS2	2004.3.20~2004.10.10	문영남	김종창

<표 1-5> 특별기획, 드라마 스페셜

	방송사	방영일자	극본	연출
파리의 연인	SBS	2004.6.12~2004.8.15	김은숙, 강은정	신우철, 손정현
올인	SBS	2003.1.15~2003.4.3	최완규	유철용
명랑소녀 성공기	SBS	2002.3.13~2002.5.20	이희명	장기홍
천국의 계단	SBS	2003.12.3~2004.2.5	박혜경	이장수
쩨의 전쟁	SBS	2007.5.16~2007.7.19	이향희	장태유
봄날	SBS	2005.1.8~2005.3.13	김규완	김종혁
발리에서 생긴일	SBS	2004.1.3~2004.3.7	김기호	최문석
프라하의 연인	SBS	2005.9.24~2005.11.20	김은숙	신우철, 김형식
유리구두	SBS	2002.3.2~2002.7.28	강은경	최윤석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27편의 드라마에는 주, 조연급 152명의 여성캐릭터가 등장한다. 실체는 더 많은 여성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극중 역할이 극히 미비해 조연급 연기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여성이긴 하나 드라마에서 무성적 존재로 등장하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TV드라마에 재현되는 여성의 외형적 이미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와 여성이 극중 수행하는 역할과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먼저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 특성 파악을 위해 여성의 연령과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령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성인 아역 포함),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외형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여성적(아담하거나 날씬한 체형,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말투와 행동, 주부인 경우는 어느 정도 비만체형이라도 여성적 흡웨어를 입은 경우), 비여성적/중성적(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옷차림, 운동복이나 바지 차림)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적 외모 가운데 수수하고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른바 자연미인형과 화려한 옷이나 화장으로 외모를 가꾼 치장형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외형적 특성과 연령대가 개별 캐릭터의 계열체적 특성이라면 각 어머니 캐릭터가 극의 갈등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통합체적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용한 것이 토도로브(Todorov, 1977/1992)의 갈등구조 분석으로 그는 최소의 완전한 플롯은 평형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평형이 어떠한 힘이나 폭력에 의해 비평형 상태로 변화했다가 제 2의 힘에 의해 다시금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토도로브가 제시하는 갈등구조 분석의 핵심은 처음의 평형 상태를 훼손하는 갈등과 새로운 평형상태를 가져오는 힘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캐릭터가 갈등을 유발하는지 혹은 해결하는지,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 어느 캐릭터가 성공과 보상의 결말을 거두는지, 반대로 어떤 캐릭터가 실패와 참회의 결말을 맞이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토도로브 통합체 분석의 목적은 여성이 극중 수행하는 역할과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역할수행의 내용보다는 각 여성이 드라마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결하는지의 여부, 드라마의 결말에서 성공이나 보상, 혹은 실패나 참회의 결말을 맞이하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4. 분석 및 논의

### 1) 드라마 유형별 분석

#### (1) 일일 드라마

일일드라마에 등장하는 분석대상 여성의 수는 총 48명<sup>5)</sup>이다. 일일드라마의 특성상 이질적 배경과 특성을 가진 둘 이상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가족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크고

5) 48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은예영, 마마린, 아리영 모 한경혜, 예영 모 심수정, 주왕 조모 금옥선, 주왕 모 금실라, ‘미우나 고우나’의 수아 조모 최여사, 단풍 모 중순, 백호 모 동지, 봉수아, 황지영, 황미아, ‘하늘만큼 땅만큼’의 석지수, 윤은주, 윤은하, 서미애, 상현 모 명자, 명자 생모 한봉례, 명자 계모 이순임, 지수 계모 명주, ‘열아홉 순정’의 양국화, 박윤정, 강신형, 홍우숙, 김옥금, 윤명혜, ‘군세어라 금순야’의 나금순, 나금아, 하성란, 하은주, 금순 숙모, 금순 조모, 금순 시모 김정심, 금순 친모 영옥, 금순 시모 오미자, ‘별난 여자 별난 남자’의 김종남, 이해인, 이옥두, 고리라, 오경주, 정다정, 큰 며느리 민숙, 작은 며느리 나라, 시모 딸자, ‘백만송이 장미’의 현규 조모 귀분, 현규 계모 순영, 혜란 모 말봉.

작은 갈등이 드라마의 주요 스토리를 구성한다.

48명 여성의 연령대는 어머니들의 연령대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이 2명,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 18명,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이 4명,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16명, 이상이 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인공은 10대 후반 1명(‘열아홉 순정’의 양국화)과 20대 중반 4명(‘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하늘만큼 땅만큼’의 석지수, ‘별난 남자 별난 여자’의 김종남, ‘군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의 5명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여성은 주인공의 연적이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또래의 시누이, 주인공의 직장동료, 친구 혹은 언니로 등장한다.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의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 등장하는데 가족 내 갈등을 그리는 일일 드라마의 특징 상 계모나 길러준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띈다.

외형적 특성은 43명이 여성적으로, 5명이 중성적으로 분류되었는데 비여성적 외모를 지닌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노인이라는 점이다(‘하늘만큼 땅만큼’의 명자생모 한봉례, ‘군세어라 금순아’의 금순할머니, 금순숙모, ‘별난 여자 별난 남자’의 시모 말자, ‘백만송이 장미’의 혜란모 말봉). 여성적 외모 가운데 꾸미지 않은 자연미인형은 주인공이거나(‘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군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 ‘열아홉 순정’의 양국화, ‘하늘만큼 땅만큼’의 지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주인공 여성과 동일한 남성을 놓고 사랑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젊은 여성(‘인어아가씨’의 은애영, ‘열아홉 순정’의 강신형, ‘군세어라 금순아’의 하은주, ‘하늘만큼 땅만큼’의 윤은주)은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대조를 이룬다.

갈등의 유발과 해결에 있어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이 35명(갈등유발과 갈등해결 동시 수행 포함)인데 비해 갈등을 해결하는 여성이 11명(갈등유발과 갈등해결 동시 수행 포함)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의 수가 갈등을 해결하는 여성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유발의 핵심에는 젊은 주인공 여성들이 위치하는데 이들은 자신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욕망함으로 갈등을 유발한다(‘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군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 ‘열아홉 순정’의 양국화, ‘하늘만큼 땅만큼’의 지수). 주인공 젊은 여성은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주위의 질시와 구박을 인내와 헌신으로 감당하며 끝내 시댁식구들의 인정을 얻어 해피엔딩을 이끌어낸다. 또한 남자 쪽 어머니나 할머니 등(‘미우나 고우나’의 최여사, ‘백만송이 장미’의 현규조모, ‘인어아가씨’의 주왕모와 주왕조모, ‘열아홉 순정’의 국화시모, ‘군세어라 금순아’의 금순시모 오미자, ‘별난 남자 별난 여자’의 나라)은 주인공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갈등해결에 기여한다.<sup>6)</sup>

일일드라마에 사용되는 또 다른 갈등유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남녀가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상형 갈등이다. 이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미우나 고우나’의 단풍모 종순, ‘인어아가씨’의 주왕모)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데 혼수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나 며느리, 혹은 사위 골탕먹이기 등이 그것이다.

결말에 이르러는 그동안의 갈등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모든 등장인물이 화해와 사랑으로

6) 갈등을 유발하는 한편 해결을 담당하는 주요인물 11명은 ‘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군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 ‘열아홉 순정’의 양국화, ‘하늘만큼 땅만큼’의 지수, ‘미우나 고우나’의 최여사, ‘백만송이 장미’의 현규조모, ‘인어아가씨’의 주왕모와 주왕조모, ‘열아홉 순정’의 국화시모, ‘군세어라 금순아’의 금순시모 오미자, ‘별난 남자 별난 여자’의 나라이며 이들은 극중에서 (예비)고부관계를 형성한다.

결합하는 해피엔드의 마무리를 보인다. 이는 일일드라마라는 장르적 성격에 힘입은 바가 큰데 가족을 소재로 다루며 일반 가족을 주요 시청층으로 제작되는 일일 드라마가 갈등을 해결하는 신화적인 치유의 공간으로 가정을 설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21명<sup>7)</sup>이며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후반 2명(주인공의 아역),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12명,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7명이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12명은 주인공 5명(‘가을동화’의 윤은서, 최신애, ‘이브의 모든 것’의 진선미, ‘맛있는 청혼’의 장희애,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과 주인공의 사랑의 라이벌 4명(‘이브의 모든 것’의 허영미, ‘맛있는 청혼’의 마시내, ‘가을동화’의 신유미, ‘내 이름은 김삼순’의 유희진), 주인공의 직장동료와 친구의 주변인물로 구성된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7명은 모두 극중 주인공의 어머니로 등장하며 주인공의 아픔을 지켜보거나(‘가을동화’의 이경하, 김순임), 자식을 버림으로 주인공이 홀로 사는 아픔을 겪도록 만들거나(‘맛있는 청혼’의 최원장), 아들의 연인을 반대하거나(‘이브의 모든 것’의 송여사, ‘내 이름은 김삼순’의 나현숙), 소소한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맛있는 청혼’의 옥자)을 수행한다.

여성들의 외모는 생계가 어려운 하위계급 1명(‘가을동화’의 은서생모 김순임)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적 외모를 유지한다. 주인공 20대 여성 가운데 착한 심성을 갖추고 있거나 주인공 남성의 구애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자연미인으로(‘가을동화’의 윤은서, 신유미, ‘이브의 모든 것’의 진선미, ‘맛있는 청혼’의 장희애), 이들과 연적관계의 여성(‘가을동화’의 최신애, ‘이브의 모든 것’의 허영미)은 화려한 치장으로 대비를 이룬다.

일일드라마와 달리 미니시리즈는 청춘남녀의 비극적 사랑이나 성공을 향한 야망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극의 주요 갈등 또한 주인공의 의지외는 상관없이 뒤틀린 운명(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가을동화’),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한 도전과 좌절(메인앵커에 도전하는 여자아나운서의 경쟁을 그린 ‘이브의 모든 것’과 요리사에 도전하는 젊은이의 도전과 사랑을 담은 ‘맛있는 청혼’)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구조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은 주변인물을 제외한 주, 주연급 14명 전원이며 이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특이함을 보인다.

주인공들이 다소 비일상적인 설정에서 갈등을 겪는 동안 주인공의 어머니들 또한 운명의 엇갈림에 따른 결혼반대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데 극의 말미에 이르러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일일드라마와 달리 1명을 제외하고(‘맛있는 결혼’의 희문 모)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이들이 맞는 불행한 결말의 원인은 자식의 죽음(‘가을동화’와 ‘이브의 모든 것’)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출생의 비밀(‘맛있는 청혼’)이며 주인공 남녀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때 어머니에게도 부수적으로 불행한 결말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비일상적 설정을 토대로 갈등을 이끌어가는 다른 미니시리즈 드라마와 달리 고졸 출신 파퇴세의 사랑과 성공을 그린 ‘내 이름은 김삼순’은 연상연하커플의 로맨스를 일상적 상황에서 그려내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 또한 평균 몸무게를 웃도는 체격을 가진 평범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7) 21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을동화’의 윤은서, 은서아역, 최신애, 신애아역, 신유미, 신애 생모 이경하, 은서 생모 김순임, ‘이브의 모든 것’의 송여사, 진선미, 허영미, 이주희, ‘맛있는 청혼’의 희문 모 옥자, 효동 생모 최원장, 장희애, 마시내, 홍주리,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 김이영, 박봉숙, 유희진, 나현숙.

배우가 실제로 살을 찌우는 등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극의 주요 갈등을 이끌어가는 삼각관계의 남녀가 여타의 드라마에서 보이는 첨예한 갈등보다는 인간애를 기본으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3) 주간 드라마

주간드라마의 어머니 여성 캐릭터는 15명<sup>8)</sup>으로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3명,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6명,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4명, 이상이 2명이다. 이 가운데 주인공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1명(‘풀하우스’의 한지은)과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3명(‘장밋빛 인생’의 맹순이, ‘내 남자의 여자’의 김지수와 이화영)이며 또래의 다른 여성은 주인공의 연적(‘풀하우스’의 강혜원, ‘장밋빛 인생’의 오미자)이거나 동생, 시누이, 불륜남의 본처 등의 핵심적 조연으로 등장한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들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장밋빛 인생’의 순이모, ‘풀하우스’의 영재모, ‘내 남자의 여자’의 준표 모와 화영 모)로 등장하며 그 이상의 인물은 할머니로 등장한다(‘풀하우스’의 영재조모, ‘장밋빛 인생’의 순이시모 끝순).

다수인 13명의 여성이 여성적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늙고(순이시모) 가난한 여성(순이모) 두 명이 중성적 외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인공 여성은 수수한 아름다움을, 주인공 여성과 연적관계의 여성은 화려한 외모를 지닌 공식은 주간드라마에서도 변함없이 찾아볼 수 있다(‘풀하우스’의 한지은과 강혜원, ‘내 남자의 여자’의 이화영과 김지수). 예외적으로는 ‘장밋빛 인생’에서 주인공 순이 남편의 내연녀 오미자는 악역이지만 수수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꽃뱀’으로 설정된 오미자의 역할에 따른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갈등유발과 해결에 있어서는 6명의 여성이 유부남과 관계를 맺거나 자녀유기, 주인공 커플과 삼각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유발하고(‘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화영모), ‘장밋빛 인생’의 맹영이, 오미자, 순이모, ‘풀하우스’의 강혜원) 이 가운데 1명(‘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이 갈등을 해결한다. 나머지 여성은 남편의 외도나 삼각관계로 원치않는 갈등에 휘말리거나(‘내 남자의 여자’의 지수, ‘장밋빛 인생’의 맹순이, 홍장미, ‘풀하우스’의 한지은) 직접적인 갈등구도와 상관없는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장밋빛 인생’의 순이시모 끝순, ‘풀하우스’의 영재모, 영재조모, ‘내 남자의 여자’의 준표모)로 주인공의 어머니, 조모, 시모 등으로 등장한다.

### (4) 주말 드라마

주말드라마에는 총 25명<sup>9)</sup>의 여성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 12명,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3명,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6명, 이상이 4명이다. 주인공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6명(‘여우와 솜사탕’의 안선녀, ‘소문난 칠공주’의 나미칠, 나설칠, 나중칠, ‘보디가드’의 나영, ‘애정의 조건’의 은파)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2명(‘소문난 칠공주’의 나덕칠, ‘애정의

8) 15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밋빛 인생’의 맹순이, 맹영이, 순이 엄마, 순이 시모 끝순, 오미자, 홍장미, ‘풀하우스’의 한지은, 강혜원, 영재 모 김여사, 영재 조모, ‘내 남자의 여자’의 지수, 은수, 화영 모, 준표 모, 화영이다.

9) 25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여우와 솜사탕’의 안선녀, 안선훈, 봉인화, 강철 모 어말숙, 선녀 모 성구자, ‘소문난 칠공주’의 나덕칠, 나설칠, 나미칠, 나중칠, 경명자, 태자 모 반찬순, 배신자, 명자 모 남달구, ‘보디가드’의 나영, 박유진, 한신애, 홍경미, 경탁 모, 나영 조모, ‘애정의 조건’의 금파, 은파, 나에리, 금파 생모 구기자, 은파 시모 이현실, 금파 시모 복실.

조건'의 금파)이며 또래의 다른 여성들은 주인공의 연적으로('보디가드'의 한신애, '소문난 칠공주'의 배신자, '애정의 조건'의 나애리),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들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그 이상의 여성들은 할머니로 등장한다.

24명의 여성 가운데 중성적 외모를 지닌 것은 50대 이상 3명의 경제력 없는 노인('소문난 칠공주'의 명자 모 남달구, '보디가드'의 나영 조모, '애정의 조건'의 금파시모 복설)으로 일일드라마와 주간드라마의 다른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코믹한 사투리와 억지스런 행동으로 극의 감초역할을 담당한다. 선한 성격의 주인공은 치장 없는 자연미인으로('애정의 조건'의 은파, '소문난 칠공주'의 나설철), 이들과 연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은 화려한 외모('애정의 조건'의 나애리, '소문난 칠공주'의 나미칠)로 표현되는 방식은 다른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역할은 15명이 갈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7명이 자신이 유발한 갈등을 해결한다. 갈등유발의 이유로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소문난 칠공주', '여우와 솜사탕'), 직장내 삼각관계('보디가드'), 남편과 아내의 외도('애정의 조건', '소문난 칠공주')가 있으며 당사자와 더불어 양쪽의 가족이 개입하며 갈등이 확산된다. 갈등을 해결하는 7명의 여성은 구박하던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시어머니('애정의 조건'의 반찬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내와 헌신으로 시댁의 인정을 받거나('소문난 칠공주'의 나중칠, 나설철, '여우와 솜사탕'의 안선녀), 자신의 외도로 야기된 분란에 책임을 지고 일정한 처벌을 받는 방식('소문난 칠공주'의 나덕칠, '애정의 조건'의 금파와 은파)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이와 같은 갈등구조에서 등장인물들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극의 결말에 이르러는 1건('소문난 칠공주'의 배신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정을 회복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일일 드라마와 주간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치유와 용서의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가치가 주말 드라마에도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특별기획, 드라마 스페셜

특별기획 형식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43명<sup>10)</sup>으로 연령대는 10대(주인공의 아역) 2명,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24명,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2명,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14명, 이상이 1명이다. 이 가운데 주인공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10명(10대 아역 2명은 별도)이며 또래의 다른 여성은 연적, 친구, 직장동료로 등장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2명은 주인공의 언니('유리 구두')와 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의 전처('파리의 연인')로 등장하며 이상의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할머니, 계모로 등장한다.

특별기획 드라마의 갈등구조는 가족 내의 일상적 갈등과 결혼으로 인한 두 가족의 갈등을 주로 다루는 일일, 주간, 주말드라마보다 비일상적이며 파격적 소재를 다루는 미니시리즈와 유사하게 출생의 비밀, 정략결혼, 금지된 사랑, 젊은이의 야망과 무한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주인공 역시 본인의

10) 43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파리의 연인'의 강태영, 문윤아, 백승경, 수혁 모 기혜, 윤아 모, '올인'의 민수연, 서진희, 유정애, 윤혜선, '명랑소녀 성공기'의 차양순, 윤나희, 황보배, 나희 모 정일, 양순 모, '천국의 계단'의 한정서(아역), 한유리(아역), 유리 생모 태미라, 송주 모 민서현, '쩨의 전쟁'의 서주의, 이차연, 금은지, 김현정, 봉여사, '봄날'의 서정은, 김민정, 김경아, 은섭 모 혜림, 은호 모, '발리에서 생긴 일'의 이수정, 최영주, 재민 모, 영주 모, '프라하의 연인'의 윤재희, 강혜주, 신광자, '유리구두'의 김윤희, 김태희, 우승희, 오산택, 태희 모 선우, 태희 고모 현자. '봄날'의 정은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극중 퇴행성유아현상을 보이는 은호의 가상 어머니가 되어 그의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어머니로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틀린 출생의 비밀이나 부모의 정략결혼으로 인한 가족과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기 등으로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은 43명 가운데 31명, 방관이 10명, 해결이 2명이다. 갈등의 유발과 해결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방관 역은 주인공의 직장동료나 친구(‘올인’의 유정애, ‘명랑소녀 성공기’의 황보배, ‘쩨의 전쟁’의 금은지, 김현정)거나 주인공의 어머니로 주인공의 갈등을 지켜보고 위로하는 병풍 같은 인물이다(‘프라하의 연인’의 신광자, ‘올인’의 윤혜선, ‘천국의 계단’의 송주모). 다른 장르의 드라마에는 등장하지 않는 방관의 예외적 인물은 주인공 남성의 첫사랑, 전처, 동거녀 등으로 등장하는 여성으로 이들은 주인공 여성의 연적이기보다는 주인공 남성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친구 같은 이미지로 등장한다(‘파리의 연인’의 백승경, ‘봄날’의 김민정, 김경아). 갈등을 해결하는 2명은 20대의 나이지만 주인공 형제의 가상어머니로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봄날’의 서정과 성공한 CEO이며 사리분별력 있는 어머니로 등장하는 ‘명랑소녀 성공기’의 정임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은 여성적인 외모를 띄고 있으며 선한 주인공은 수수한 아름다움(‘파리의 연인’의 강태영, ‘명랑소녀 성공기’의 차양순, ‘천국의 계단’의 한정서, ‘유리구두’의 김윤희),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파리의 연인’의 문윤아, ‘명랑소녀 성공기’의 윤다희, ‘천국의 계단’의 한유리, ‘유리구두’의 우승희)은 짙은 화장과 화려한 치장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은 다른 드라마와 다르지 않다. 특히 주인공의 계모로 등장해 주인공을 학대하는 여성들(‘천국의 계단’의 태미라, ‘봄날’의 혜림)은 모두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무기로 재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이룬 캐릭터로 등장한다.

가정 안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일일, 주말드라마와는 달리 특별기획 드라마는 권선징악의 결말이나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 주인공의 떠남 등 열린 결말로 극을 마무리한다. 주인공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악역들은 철저한 처벌을 받는데 특히 주인공을 괴롭히던 계모는 극의 마무리에 이르러 그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 2)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 (1)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역할 차별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 조연급 여성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69명)과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47)명이다. 다음으로는 30대 중반과 40대 초반, 6,70대가 각각 15명이며 10대 후반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6명이다.

<표 2> 연령에 따른 어머니 분포

	10대후 - 20대초	20대중 - 30대초	30대중 - 40대초	40대중 - 50대중	이상
일일드라마	2	18	4	16	8
미니시리즈	2	12	0	7	0
주간드라마	0	3	6	4	2
주말드라마	0	12	3	6	4
특별기획	2	24	2	14	1
계	6	69	15	47	15

드라마의 형식을 막론하고 등장여성의 연령대는 주인공이 극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모든 여주인공은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편의 외도나 불륜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를 둔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내 남자의 여자’의 지수와 화영, ‘장밋빛 인생’의 맹순이, ‘소문난 칠공주’의 나덕칠, ‘애정의 조건’의 금파). 즉, 27편의 드라마 가운데 4편을 제외한 23편의 드라마에서 20대, 혹은 그보다 어린 10대 여성(‘열아홉 순정’의 국화)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은 예외없이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계모 등 주인공의 주변인물로 등장하며 6,70대 노인 역시 주인공의 조모 등 주변인물로 등장한다.

2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는 만큼 대부분 드라마의 기본 갈등은 사랑과 결혼, 인생의 꿈에 향한 도전과 좌절, 성취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나이 든 세대가 겪는 고민보다는 2,30대의 젊은 세대가 겪는 운명적 사랑이나 인생을 건 도전 등이 드라마의 주요소재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드라마 제작 경향이 노인이나 청소년의 문제보다는 2,30대의 고민과 현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52명의 주, 조연급 여성 가운데 45% 정도가 20대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분석결과는 TV드라마 속의 여성들이 육체적 아름다움과 성적매력이 강조되는 특정한 연령대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Signorielli&Bacue, 1999; 김명혜 & 김훈순, 1996; 한동신, 1984)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외형적 아름다움이 드라마의 진행에 그만큼 비중있게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나이 든 여성은 어머니나 시어머니, 계모, 할머니 등의 주인공과 연결된 주변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주인공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주인공들에게 출생의 비밀이라는 불행한 환경을 선사하는 것, 자식을 공정하게 사랑하지 않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족 이기주의적 모습으로 소소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 외 갈등의 유발에 관여하지 않는 4,50대 여성은 방관형으로 주인공의 어머니라는 배경적 역할 외에는 별다른 비중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외적 2명은 ‘하늘만큼 땅만큼’의 명자와 ‘명랑소녀 성공기’의 정임으로 이들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해결만 하는 역할로 사람살이에 필요한 의리와 배려가 있으며 인생의 경륜으로 인한 지혜가 있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152명 가운데 2명으로 극소수에 머문다.

여성등장인물의 외모와 갈등구도에서의 역할이 타 드라마와 차별화된 드라마로 미니시리즈 ‘내 이름은 김삼순’을 지적할 수 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과 그녀의 연적은 외형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여성등장인물 누구도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주인공들의 어머니 역시 타 드라마의 나이 든 여성이 수행하는 주변적 역할이나 갈등유발의 역할대신 자신의 인생을 살며 주인공의 조인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된 드라마 가운데 이러한 비전형적 여성상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드라마는 ‘내 이름은 김삼순’ 1편으로 그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52명의 등장여성 가운데 비여성적, 중성적 외모를 지닌 인물은 11명으로 이들 가운데 9명이 노인으로 등장해 나이와 외적인 여성성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회가 규정하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상실한 이들 노인여성은 공통적으로 무지, 뻔뻔함, 사투리, 유난스런 식탐,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된다. 이들의 유치한 말과 행동은 특히 경제력 없는 여성의 나이 들이 아무런 사회적 존경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드라마에서 여성이 주인공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나이 들은 인격의 성숙함이나 사회적 존경과 연결되어 묘사되지 않는다. 드라마 속의 나이 든 여성들은 2,30대 젊은이들에게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그들에게 의지해 제한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한성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계급,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 든 여성의 특징으로 일반화되며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방관자적인 어머니, 자식의 사랑에 개입해 갈등을 유발하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대를 넘어 할머니의 연령대로 진입한 여성은 문자 그대로 ‘할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며 나이 들에 따른 성숙함과 삶에 대한 성찰의 능력 대신 주책스러움과 단순함이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

## (2) 젊음과 순수한 미모의 우월화

주인공, 그 가운데서도 성실과 인내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인공 어머니의 공통점은 젊고 아름다운 외모이다.<sup>11)</sup> 또한 이들과 사랑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대립하는 캐릭터<sup>12)</sup>는 주인공과 동년배이면서 주인공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대비해 공들인 화장과 화려한 의상 등으로 외형적인 대비를 이룬다. 주인공들이 지닌 아름다움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출산, 가사노동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성을 지닌다.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성 가운데 하나인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것도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는 설정은 날씬한 몸매유지를 위해 힘들게 노력하거나 비싼 옷을 사입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여성으로서 이들의 타고난 자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암시한다.<sup>13)</sup>

위에서 논의된 대로 결혼제도를 통해 여성이 남성의 자본과 지위를 공유하는 체제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은 육체자본으로 활용된다. 여주인공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남성은 무엇보다 여주인공의 청순한 외모에 마음이 끌리며 이들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몸은 이들에게 신분상승을 가능케 하는 육체자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들은 극중 자신들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자본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남성을 향한 사랑만이 이들의 계급상승을 이루는 수단으로 묘사된다. 이는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몸이 지니는 육체자본으로서의 가치보다 이른바 ‘마음의 아름다움’을 우위에 놓는 설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주인공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로서 이들이 지닌 우월한 외모는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외모의 가치를 뚜렷하게 전달한다.<sup>14)</sup>

11) ‘인어아가씨’의 은아리영, ‘군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 ‘열아홉 순정’의 양국화, ‘하늘만큼 땅만큼’의 지수, ‘가을동화’의 윤은서, ‘이브의 모든 것’의 진선미, ‘맛있는 청춘’의 장희애, ‘폴하우스’의 한지원, ‘애정의 조건’의 은과, ‘소문난 칠공주’의 나설칠, ‘파리의 연인’의 강태영, ‘명랑소녀 성공기’의 차양순, ‘천국의 계단’의 한정서, ‘유리구두’의 김윤희, ‘봄날’의 정은

12) ‘인어아가씨’의 은예영, ‘열아홉 순정’의 강신형, ‘군세어라 금순아’의 하은주, ‘하늘만큼 땅만큼’의 윤은주, ‘가을동화’의 최신애, ‘이브의 모든 것’의 허영미, ‘폴하우스’의 강혜원, ‘애정의 조건’의 나애리, ‘소문난 칠공주’의 나미칠, ‘파리의 연인’의 문윤아, ‘명랑소녀 성공기’의 윤다희, ‘천국의 계단’의 한유리, ‘유리구두’의 우승희

13) 월트 디즈니사가 만든 대표적인 로맨스물인 <귀여운 여인(1990)>은 상류층 남자가 거리의 창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극중에서 오페라를 처음 보는 창녀가 크나큰 감동을 느끼고 남자가 그러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한다. 통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듣기훈련이 필요한 클래식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창녀의 모습에서 남자주인공과 관객들은 ‘신분을 잃은 공주’를 연상하며 이 여성이 상류층 남성의 상대가 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14) 순수한 외모의 여주인공들은 극중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공공연히 표시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들의 미모는 보통의 여성들보다 뛰어난 수준이며 중하위 계층으로 설정된 배우들이 입고 등장하는 옷이나 장신구 역시 현실적으로 중하위 계층의 여성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의 외모가 남주인공의 사랑을 얻는데 유용한 육체자본으로 활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3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배우자의 외모가 극의 주요갈등으로 제시되는 경우로 ‘내 남자의 여자’의 지수나 ‘장밋빛 인생’의 맹순이의 경우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주부로서의 성실함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실천이 주인공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된다.

### (3) 몸의 권력화에 대한 거부

육체자본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여성의 육체가 남성을 위한 성적대상이 아닌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드라마는 이들의 육체를 또래의 여성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시적이고 위태로운 가치로 묘사한다.

‘인어아가씨’의 심수정, ‘봄날’의 혜림, ‘천국의 계단’의 태미라, ‘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과 화영모가 대표적 경우로 이들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30대와 같은 몸매에 짙은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 몸매를 드러내는 옷차림 등으로 또래의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된다. 이들은 극중 자신들의 육체자본을 이용해 유부남을 유혹해 가정을 해체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성격은 이기적으로 (전처)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육체적 매력으로 신분상승을 이룬 자신들의 경험으로 남성의 욕망의 대상인 젊고 매력적인 육체의 힘을 잘 알고 있으며 늙고 추함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인다. 젊은 육체에 대한 이들의 강박증은 늙음과 함께 사회의 주요인사로 중후함을 더해가는 비슷한 연령의 남성이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젊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분명한 열등함을 드러낸다.

결국 드라마는 여성의 몸이 지닌 젊음과 아름다움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는 여성 자신이 이러한 몸을 권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여성의 나이가 30대를 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 육체자본의 힘을 경험했으며 권력을 이해하는 4,50대 여성의 젊음에 대한 노력은 강박증으로 묘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함으로 평가절하의 대상이 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방송된 TV드라마 27편, 152명의 여성등장인물의 연령대, 외형적 특징, 그리고 이들이 극의 주요갈등구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외형적 이미지와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과 외형적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2000년대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의 45%는 20대 여성이며 27편 가운데 23편의 드라마가 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편 가운데 3,40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배우자의 외도를 소재로 삼은 4편의 드라마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20대 남녀의 사랑과 결혼, 도전과 좌절을 드라마의 갈등구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4,50대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여성은 주인공의 할머니라는 제한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삶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어른이기보다는 자녀의 연애사에 개입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처신으로 자녀세대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혹은 가족이기

주의로 일상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드라마의 주요갈등구도에서 소외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한 주인공 여성들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실히 재현하며 특히 꾸밈이 없는 자연스럽게 순수한 아름다움이 주인공 여성의 외형적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권력획득을 위한 육체자본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그러한 여성의 몸을 위태롭고 강박적인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몸의 권력화를 경계한다.

2000년대 TV드라마가 젊고 아름다운 20대 여성의 재현에 집중하고 있으며 4,50대 나이 든 여성은 보다 제한되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 젊은 여성의 꾸밈이 많은 아름다움이 선한 여성의 외형적 조건임과 동시에 여성의 신분상승을 위한 핵심자본으로 작용하는 서사, 권력을 이해하며 육체를 권력획득의 도구로 사용하는 중년여성에게 갈등유발자로서 불행한 결말을 선사하는 드라마 갈등구도의 설정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의 논의를 가능케 한다. 연구자는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1980년대와 90년대 드라마의 여성 재현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 2,30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는 여성의 학업성취도와 활발한 전문직 진출, 육아에 몰입된 삶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비교할 때 여성의 여러 가치 가운데 젊고 아름다운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에 이르는 이성애적 로맨스를 20대 여성의 가장 큰 인생 프로젝트로 제시하는 드라마의 모습은 그 변화없음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대학교육을 거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전업주부라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늙음의 모습을 고민하는 4,50대 여성들의 고민이 드라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얻고 그에 따라 신분상승을 이룬다는 갈등구도는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가 자본으로 기능하며 그에 따라 나이 든 여성, 아름답지 못한 여성, 장애 있는 여성은 열등한 주변적 존재로 위치지어지는 기존의 가치를 충실히 재생산함에 다름 아니다. 나이든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나 할머니로 제한되며 남성권력을 이해하는 나이 든 여성의 모습이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갈등유발적으로 그려지는 것 역시 앞서 논의된 대로 여성의 늙음에 대한 사회의 획일적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예외사례가 있기는 하나 대안적 흐름으로 보기에는 사례의 수가 워낙 작아 의미를 두기가 쉽지 않다. 결국 2000년대 들어서도 한국의 TV드라마는 다른 무엇보다 여성의 젊음과 외모를 여성의 주된 가치로 제시하는 완고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늙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고민이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또한 나이 든 여성의 재현에 관심이 제한된 한계를 가진다. 나이든 남성의 재현, 또한 남성의 나이 늙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시도는 다음의 기회를 기약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소수이긴 하나 나이 든 세대의 삶의 고민과 성찰을 다룬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시도할 기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 Ⅰ 참고문헌

- 권명아(1999). 모성신화와 가족주의, 그 과시즘적 성격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161~199
- 고선주, 정진경(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집, 33~75
- 고혜경(2006). 옛 이야기를 통해서 본 여성성의 재발견: 선녀는 왜 나뭇꾼을 떠났을까. 서울: 한겨레출판사.
- 김명혜&김훈순(1996). 여성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8호, 203~248
- 김은실(2003). 이춤마들이 만드는 탈성별화의 세상을 기대하며. 『당대비평』, 24, 174~192
- 박선영(2004). 여성의 몸, 우리가 말한다. 『여성과 사회』, 15호, 210~231
- 박희경(2002). 어떻게 우리는 여자, 혹은 남자인가? : 독일 내 젠더 논의에 있어서 몸과 육체. 『한국여성학』, 18권 2호, 107~135
-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 여성정치인의 재현.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452~484.
- 오자영(2007). 『30대 기혼 여성의 팬덤과 나이의 문화정치학: 동방신기 팬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자(2006). 몸권력과 젠더: 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관리. 『한국여성학』, 22권, 197~233
- 이재복(2004). 몸담론 연구사 고찰. 『국제어문』, 30집, 401~443
- 장수정(2005).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44집 2호, 37~70
- 장필화(1992). 여성/성/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옥라(2001). 한국사회에서 나이들, 그리고 여성의 나이.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21~32).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현진(2004). 『성형수술자의 경험을 통해 본 중년 여성의 ‘나이 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종원(2003). 텔레비전 일일연속극에 나타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권 2호, 385~419
- 한동신(1984).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설이(1999).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본 성의 정치학. 한국성폭력상담소(역). 『섹슈얼리티 강의』(144~171). 서울: 동녘
- 홍지아(2009).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력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23권 6호, 284~321
- Bartky, S(1988).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김희선, 엄용희 외 역(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206~239). 서울: 한울(원저 출판연도 1988).
- Beauvoir, S(1949) Deuxieme Sexe. 강명희 역(1996). 『제 2의 성』. 서울:하서출판사
- Bordo, S.(1998). Reading the Slender Body. In Welton, D(Eds.), *Body and Flesh: A Philosophical Read*(pp291 ~304). Oxford:Blackwell
- Bordo, S.(1988).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김희선, 엄용희 외 역(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117~140). 서울: 한울(원저 출판연도 1993).
- Bordo, S(1993). Unbearable Weight. 박오복 역(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Connell,R(1983). Which way is up? Sydney:George Allen and Unwin.
- Epstein, F.(1992). Tinkerbells and Pinups: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ender boundaries at work. In Lamont, M., & M.Fournier(Eds.), *Cultivating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Making of Inequality* (pp232~25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ske, J., & Hartley, J. (1978). *Reading Television*. 이 익성, 이 은호 역(1997). 『TV읽기』. 서울:현대미학사.

- Gerbener, G. Gross, L, Signorielli, N, Morgan, M(199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37~47
- Giddens(1995). 푸코와 섹슈얼리티. 황정미 편역(1996).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39~58). 서울: 새물결.(원저 출판연도 1992).
- Gilman, L.(2001). Making the body beautiful: A Cultural history of aesthetic surgery. 광재은 역(2003). 성형수술의 문화사. 서울: 이소출판사
- Millett, K.(1970). Sexual Politics. 김전유경 역(2007). 성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이후.
- Mulvey, L.(1994). 시각적 쾌락과 서사영화. 김훈순 역 (1994). 『성. 미디어. 문화: 여성과커뮤니케이션』(225~242쪽). 서울: 나남출판.(원저출판연도 1975)
- Newcomb,H.& Hirsch, P.M.(1983). Television as a Cultural Forum. *Quarterly Review of Film Studies*, Summer.
- Posch, W.(1999). Körper Machen Leute. 조원규 역(2001). 『몸, 숭배와 광기』. 서울: 여성신문사
- Rich, A.(1976). *Of Woman Born;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김인성 역(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서울: 평민사.
- Sawicki, J.(1995). 정체성 정치와 성적 자유. 황정미 편역(1995). 『미셸 푸코, 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39~58). 서울: 새물결.(원저 출판연도 1988).
- Shilling, C.(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 역(1999). 『몸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Signorielli, N&Bacue.A.(1999). Recognition and Respect: A content analysis of prime-time television characters across three decades). *Sex Roles*, Vol. 40. 527~544
- Steinum, G(1995). Outrageous Acts and Everyday Rebellions. 양이현정 역 (2000). 『일상의 반란』. 서울:현실문화연구.
- Walters, S.D (1995).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김현미, 김주현, 신정원, 윤자영 역(1999).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White,M.(1987). 이데올로기 분석과 텔레비전. in R. Allen(ed.), *Channels of Discourse: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김훈순 역(1994). 『텔레비전과 현대비평』(185~230쪽). 서울: 나남출판
- Young, I.(1998). Throwing like a girl.In Welton, D(Eds),*Body and Flesh: A Philosophical Read(pp259~273)*. Oxford:Blackwell

(투고일자: 2009.11.30, 수정일자: 2010.1.14, 게재확정일자: 2010.1.19)

ABSTRACT

## The discourse of women's body represented in TV dramas

Ji-A Hong\*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what kind of female images TV dramas have represented from 2000 to 2007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se images and the actual roles the female characters perform have in the drama. The total number of dramas analyzed is 27, and 152 female characters are analyzed. The result finds that 45% among 152 characters is in her 20's, and most of them play the main roles. Only 4 dramas use 3,40's female characters as main figures. Most 4,50 female characters play mother or grand mother roles of main characters, and they usually interrupt main character's love relationships or don't play any meaningful roles for the narrative. The old female characters over her 60's tend to play foolish and ridiculous roles and don't show any physical charms. The female main characters are beautiful and young, and the more they play good roles, they have better natural beauty comparing the bad characters. The youth and beauty of main characters helps the owner to earn the love of main male characters. It's obvious that the dramas show that female's body as physical capital to achieve higher class and power.

Keywords: body, aging, physical capital, TV drama

---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Communication, KyungHee University